



정교회주보

2023-01호

1월 1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 (02)362-6371 | F. (02)365-2698 | orthodoxkorea.org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레 축일
성 대 바실리오스 케사리아의 대주교
(제4조 • 조과 복음 7)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제 2 안티폰	144
제4조 부활 찬양송	82
주일 입당송	46
주 할레 축일 찬양송	144
성 대 바실리오스 찬양송	144
성당 찬양송	
주 할레 시기송	144
사도경 : 골로사이 2,8~12 봉독서	145
복음경 : 루가 2,20~21; 40~52 ..	145
'우리가 참 빛' 대신 '주 할레 찬양송'	
• 신년 대영광식	147

한국 대주교 2023년 신년 메시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형언할 수 없는 자애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신 것에 대해 끝없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한 후에, 2023년이 축복되고, 평화롭고, 열매를 맺으며, 기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새해의 첫날에 각자 자문해봅시다.

새해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되면, 새해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되시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2면에서 계속)

“오직 사람만이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면, 그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물질적 필요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고, 새해에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마태오 7,7)라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은총을 요청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혼의 산소’인 기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가진 고유한 특권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지상의 어떤 피조물도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기도를 통해 친교를 나누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 간의 친교의 대화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만큼 하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천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의 친교를 절대 거부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말을 깊은 애정으로 들으시는 데 결코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십니다.

새해에는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교회 공동체로서 모두 함께, 전능한 무기인 기도를 활용하도록 합시다. 즉, 개인 기도를 하는 데 매일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주중에 있는 교회 예배에도 더 자주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다음의 사항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청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우리가 욕망과 투쟁하고 덕을 계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와 투쟁의 마음을 주시길,

주님의 온 세상의 교회에 평화가 임하길,

우리가 Covid-19에서 벗어나길,

전쟁을 지휘하고 책임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주셔서, 우크라이나, 시리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전쟁이 종식되길,

한국에서 정교회를 더 널리 증언할 수 있도록 한국 정교회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축복해주시길,

한반도에 통일과 화해가 실현되길,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식량 위기가 극복되길, 간청드리고 기도드립니다.

한국 정교회 대교구의 모든 성직자들과 협력자들을 대표하여, 2023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장수하시어, 육화하신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큰 사랑과 특별한 존경의 마음으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의 대주교이자 일본의 엑사르호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하느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산상 설교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단번에 복음의 중심에 섭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단순합니다.

하지만 정념으로, 혹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인간의 지식들로 시선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시선을 다시 배우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수' 중에서 [정교회 출판사]



겸손에 대한 생각

아타나시아 봉사자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겸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교부들은 겸손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겸손의 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아래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 겸손의 정신을 기르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먼저, 성서 말씀을 살펴봅시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로마 12,3)

“무슨 일이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필립비 2,3)

다음으로는 시리아인 이삭 성인(7세기, 니느웨의 주교)이 말합니다.

“어떤 다른 선한 행위가 없더라도 겸손 그 자체는 영적으로 유익하며, 우리에게 하느님의 용서하심을 가져옵니다.”

“겸손은, 비록 다른 행동과 노력이 없을지라도, 많은 잘못에 대해 용서를 받게 합니다. 하지만 겸손이 없으면 행동과 노력도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도리어 우리에게 커다란 악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해 겸손을 통해 하느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시다. 마치 어떤 음식에든지 소금이 제맛을 내듯이, 모든 영적인 덕에는 겸손이 필요한 것이며, 또한 많은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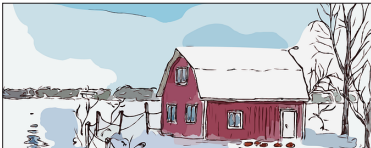


주간 예배 안내

- * 1월 5일(목)
오전 9시 : 신현 축일 대시과
오후 5시 : 대만과 및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 1월 6일(금)
오전 8:45~ : 신현 축일 조과
성 요한 크리스소스톰 성찬예배
대성수식
- * 1월 7일(토)
세례자 요한의 연관축일
오전 9시 : 조과,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가정 성수식 신청하세요

정교회 전통에 따라 신현 축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도 성수식을 거행합니다.
원하시는 가정은 신부님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가르침

기 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만 하느님과 대화의 대화가 떠오르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어느 무명 교부는 가르칩니다.

우리 영혼은 네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
'죄를 미워할 것',
'덕을 사랑할 것',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

이시도로스 원로 수도자가 형제 수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기도를 위한 특별한 시간이 없었소. 내 기도는 24시간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특히 깊은 밤에 더욱더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 식

■ 신자총회 공고

각 성당의 2023회계년도 정기 신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지난해 결산과 새해 예산, 영적 사업,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신자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2023년 1월 8일 (주일) - 전주 성당

1월 15일 (주일) - 서울, 부산, 인천, 춘천, 울산 성당

■ 신품성사와 40일 성찬예배

사정상 연기되었던 요한 박인곤 보제의 사제 신품성사가 오늘 거행됩니다. 요한 사제는 서품 이후 40일동안 성찬예배를 계속 집전합니다. 내일부터 서울 성당에서 시작하여 울산 성당으로 이어집니다.

■ 세례를 축하합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17일)과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24일), 인천 성 바울로 성당(24일)에서 세례성사가 있었습니다.

새신자 분들께 축하드리며,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전주 성당 - 크리스토퍼 로건 리더, 바울로 다엘 리더, 에르미오니 나라 리더
- 서울 성당 - 조이 박기쁨
- 인천 성당 - 세라피나 이경은, 신 요한, 최 마리아, 욥 김재원, 마르코스 강성재, 다윗 신재성